

종합

제과기능장 6명 합격, 총 36명으로 늘어 54명 응시 9 : 1의 경쟁률 ... 응시자 계속 몰릴 듯

99년 제과기능장 2차 시험에서 모두 54명의 응시생 중 6명이 최종 합격해 92년 이후 제과기능장이 36명으로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13일 김영선(한미제과제빵전문학원 원장), 홍성근(포항제과기술학원 부원장), 이관복(전주 밀가든제과 대표), 조성환(포항 휘트니제과점 대표), 유명현(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교사), 박배철(부산 롯데백화

점 브랑제리 제과장) 등 6명의 제과기능장 합격자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97년과 거의 동일하게 출제됐는데 국가기관에서 실시되는 시험인 만큼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성의있고 신중한 문제 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인수〉



김영선
· 미국제빵학교(AB) 졸업
·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교사
· 현 한미제과제빵전문학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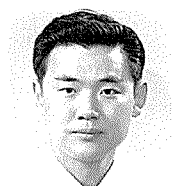
홍성근
·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졸업(2회)
· 김충복과자점, 풍년제과 근무
· 현 포항제과기술학원 부원장



이관복
· 전주 풍년제과 공장장
· 전주직업전문학교 교사
· 현 전주 밀가든제과 대표



조성환
· 63베이커리 제과장
· 포항 시민제과 공장장
· 현 포항 휘트니과자점 대표



유명현
· 고려당, 웨라튼 워커힐 근무
· 대한제과기술학원 근무
· 현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교사



박배철
· 하얏트호텔, 김충복과자점 근무
· 밀탐 브랑제리 근무
· 현 부산 롯데백화점 브랑제리 제과장

이 그동안 전개해온 역사 찾기 작업 과정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양과자·과자점·유지를 비롯한 원료의 기원 및 출현과 업계 인맥 파악 등을 더듬어 과업사를 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데 합의 했으며 아울러 편찬 위원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종선〉

서울하인즈, 미국 본사가 인수 한국측 소유 지분 15% 전량 매입해

서울하인즈의 운영 주체가 미국 하인즈사로 완전히 넘어갔다.

지난해말 이 업체의 서성훈 대표측의 소유 지분 15%를 미국 하인즈가 전량 인수함으로써 서울하인즈는 외국인 업체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이번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변화는 거의 없으며, 그동안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서울하인즈란 회사명도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종선〉

홈메이드제빵 전문 교사 등장 우승정보대 중등사범과정 13명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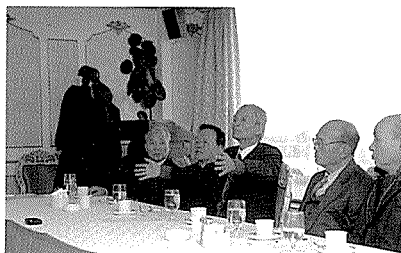
대전 우승정보대(총장 김성경)가 지난 12월 14일 홈메이드제빵 중등사범과정 졸업식을 열고 처음으로 13명의 홈메이드 제빵 교사를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 학교 김성경 총장과 일본 홈메이드협회 나다요시 이사장이 참석, 졸업생들에게 홈메이드교사 면허증을 수여했다.

졸업생들은 기초반 6주, 상급반 6주, 연구반 6주 등 총 18주의 교육을 마치고 1주일간 중등사범 과정 및 마이스터 코스를 이수했다. 〈손인수〉

업계 백년사 뿌리찾기 간담회 원로 등 12명 내용 정립 의견 교환

베이킹타임스는 지난해 12월 9일 कै팔호텔에서 조승환 대한제과협회 고문, 권상범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환식 씨를 비롯한 원로와 관련 업계 인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100년사 뿌리찾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한국 제과업계의 비사'를 집필 중인 조승환 고문

자영제과점 / 프랜차이즈업체

나폴레옹과자점, 케이터링 사업 추진 센트럴 키친 설립 예정, 빵·과자 및 양식 공급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청담동에 4층 규모로 베이커리 레스토랑 컨셉의 점포를 오픈한 나폴레옹과자점(대표 강병천)이 올해 케이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나폴레옹과자점은 영문판을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센트럴 키친을 설립해 빵, 과자는 물론 이탈리아 음식을 공급할 방침이다.

주 타깃은 기업체, 외국인,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으로 이 중 커피전문점, 레스토랑에는 하드롤, 바게트, 양과자, 쿠키,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강병천 사장은 “프랑스의 유명 베이커리 업체의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케이터링 사업을 통해 올리고 있다”며 “이는 베이커리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손인수〉

이 업체는 벨기에 ‘레오니다스’ 사로부터 27종류의 초콜릿 제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12월, 분당 ‘브씨엘’ 내에 초콜릿 코너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현재 ‘브씨엘’에서는 날개나 g단위로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개당 1,000원이다.

신라명과는 향후 자사 가맹점에 세트 구성한 초콜릿 제품을 제공하는 등 판매망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경욱〉

케이크배달업체, 그린베이커리 전국 체인망 구축, 이달부터 사업 돌입

또 하나의 케이크 배달 전문업체가 등장했다. 미루코리아 그린베이커리(대표 김호철)는 홈페이지(www.greenbakery.co.kr)를 오픈하고 이달부터 케이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취급상품은 각종 선물용 케이크와 샴페인, 꽃다발 등 옵션상품으로 구성됐으며, 운영방식은 080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회원 제과점이 제품을 배달하는 형태다. 현재 이 업체는 회원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시, 군, 구별로 3~5개의 제과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회원점은 2년마다 시 지역의 경우 50만 원, 군 지역의 경우 3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업체는 판매보장책의 일환으로 그린베이커리를 통한 연매출이 5천만원 미만시에는 가맹기간을 무료로 재연장해주는 최소보장제를 실시하는 한편, SK의 OK캐쉬백 에이전트사라는 이점을 살려 향후 약 1,700만명의 SK 회원을 단골 고객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손인수〉

베르띠에 가맹 1호 오픈 1월 중순 도곡동에 20평 규모로

베르띠에가 강남구 도곡동에 가맹점을 오픈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르띠에는 지난해 2월, 뉴욕제과 사 업무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후 현재 신사동 본점을 비롯해 신세계점, 부산점 등 직영점만을 운영해 왔다.

1월 중순에 오픈하는 베르띠에 가맹 1호점은 약 20평 규모로 150가지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데 신사 본점에서 30%를 완제품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베르띠에 신사점과 부산점에 서 기술자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제과 김재철 본부장은 “베르띠에는 점포 컨셉상 뛰어난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가맹점 확산은 힘들 것”이라며 “올해 안에 1곳 정도만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브르망베이커리 직영체제로 인스토어 베이커리 15개 오픈 계획

유사프랜차이즈업체인 브르망베이커리가 회사명을 B&C컨설팅으로 바꾸고 향후 직영점 위주로 점포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B&C컨설팅(대표 김선중)은 지난 12월 한달 동안 포항, 전주, 당진, 김포, 인천, 원주 등 6곳에 인스토어 베이커리 형태로 직영점을 오픈했으며 이달에는 서울 중계동 365마트와 천호동 킴스클럽에 20평 규모의 점포를 각각 개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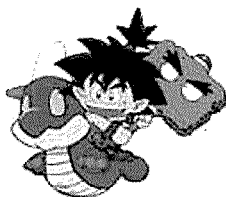
이 업체는 앞으로도 올해 안에 7개의 매장을 추가로 개설해 총 15개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손인수〉

신라명과, 벨기에 초콜릿 수입 ‘레오니다스’ 27종, 브씨엘에서 판매

신라명과(대표 홍평우)가 벨기에로부터 초콜릿 제품을 수입해 판매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업체 / 양산업체

기린, 서울식품 캐릭터 제품 출시 젤라비·돌비빵 시리즈 출시, 시장 과열 조짐



기린과 서울식품이 어린이층을 공략한 캐릭터 제품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양산 제빵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삼립식품과 샤니가 국전 이빵과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자 기린과 서울식품도 새로운 캐릭터를 접목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에 가세한 데 따른 것.

기린(대표 노 황)은 지난달 13일부터 현재 SBS에서 방영중인 애니메이션 '춤추는 젤라비'의 캐릭터를 접목한 젤라비빵 시리즈 13종류를 새로 출시했다. 이 업체는 신제품 홍보를 위해 대구와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교 시간에 젤라비 캐릭터 복장을 한 도우미가 교통지도를 하며 캐릭터가 새겨진 책받침과 엽서를 나눠주는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개최했다. 또한 1월부터 어린이 시간대에 맞춰 TV CF를 방영하고 있다.

서울식품(대표 서성훈) 역시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 KBS에서 방영중인 '4차원 탐정 돌비' 캐릭터를 접목한 돌비빵 시리즈 9종류를 출시했다. 이 업체는 12월부터 두달간 포장지에 있는 응모권 5장을 엽서에 붙여 보내면 추첨을 통해 음성메모리 인형이나 문구세트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기린과 서울식품이 제품 출시와 동시에 시장 공략을 위한 대대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어 올해 어린이층을 겨냥한 캐릭터 마케팅 열기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욱>

에서 제과제빵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기업대상은 현대리서치 연구소가 여성 소비자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20개 부문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크라운베이커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베이킹 마스터 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온 점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 수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경욱>

신라명과, 신용카드 발급 삼성카드와 제휴, 마일리지 제공

신라명과(대표 홍평우)가 '신라명과 빅보너스카드'를 발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업체는 삼성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지난 12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기능은 물론 신라명과 등 빅보너스 가맹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신청자 중 100명을 추첨해 '주노명베이커리' 영화 시사회권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라명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신라명과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욱>

파리·크리온, 소비자상 수상 인터넷과 여성신문사 설문조사로 선정

파리크라상과 크라운베이커리가 각각 '99 글로벌 소비자선호 대상'과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에서 프랜차이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터넷 전문 업체 컨슈머뉴스(Consumer News)가 주최하고 네이버와 심마니, 드림라인 등이 후원한 '99 글로벌 소비자선호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9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상업체를 선정했는데 파리크라상은 제

과 프랜차이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해 파리크라상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많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상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매일경제신문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99 한국 유통대상 프랜차이즈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여성신문사가 주최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대상'

원부재료 / 기타

‘머핀 · 스펀지 믹스’ 시장 경쟁 치열 유니온 · 서울하인즈 독일과 호주서 수입 판매

머핀 믹스 · 스펀지믹스의 시장 경쟁이 뜨겁다. 머핀 믹스는 제원인터내셔널이 미국 웨스트코사의 ‘푸드 앤 크림 믹스’를, 선인베이크이 호주 베이클사의 ‘크림 케익 믹스’를 수입해 각각 연간 100톤과 30톤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해 11월 유니온무역이 독일의 델러(DO-HLER)사의 ‘유니 머핀 · 파운드케이크 믹스’를 수입한데 이어 서울하인즈도 호주의 푸드웨스턴잉글리언트 제품 수입을 검토 중이다.

유니온무역은 경기도 광주군 재료 창고에 소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으며

수요처에 배합비 제공, 세미나를 통해 판매 확산을 꾀하고 있다. 또 Siba '99 기간 중 머핀믹스의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한 서울하인즈도 호주산 제품 취급을 고려 중이다.

한편 케이크 스펀지와 스위트롤을 제조할 수 있는 스펀지 믹스는 제원인터내셔널만이 페티스프랑스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나 시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니온무역이 독일 델러사의 ‘유니 스펀지 믹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하인즈도 호주의 푸드웨스턴잉글리언트사로부터 수입을 검토 중이다. <박종선>

하모니, 제과 품목 확대 활발 캔디 · 스프레드 치즈 추가로 수입

하모니트레이딩(대표 최병순)이 제과 완제품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스위스 린트(Lindt)사의 초콜릿과 도라토(DORATO) 무알콜 샴페인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하모니트레이딩은 올 1월 화이트테이용 캔디와 소비자용 스프레드치즈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프랑스 바니어(BARNIER)사 제품으로 5가지 과일 맛의 ‘미니’ 캔디와 5가지 맛의 ‘카라멜’ 캔디, ‘프랄리네’ 캔디 6가지, ‘펄피(Pulpi)’ 캔디, ‘밀크 5센티 오차드’ 캔디를 수입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수요가 점차 증가해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모니트레이딩은 현재 유럽에서 15%의 점유율 기록하고 있는 네덜란드 프리코(Frico)사의

소매용 스프레드 치즈를 수입할 예정인 등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박종선>

국내산 버터, 생크림 공급 증가 겨울철 추가 생산, 원유 확보 용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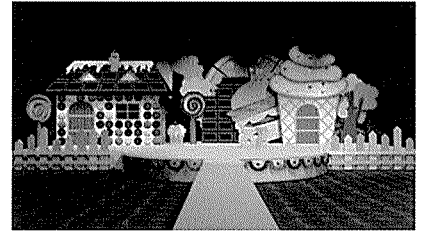
국내산 버터와 생크림의 제한 공급이 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국내산 생크림 수요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전 보다는 원유 수급이 좋아져 공급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한편 각급 학교가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있어 앞으로는 급식용 우유를 만들던 원유로 버터와 생크림을 추가 생산해 1, 2월 중에 국내산 버터와 생크림의 제한 공급은 완전히 풀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정향상>

과자 나라 신비한 세계 전시회 1월5일~2월6일 33일간 코엑스서 개최



빵, 과자를 소재로 만든 조형물이 대거 선보이는 ‘과자의 나라 신비한 세계’ 전시회가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관에서 열린다. 새천년을 맞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주)이벤트 21과 (주)코엑스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과자 민속촌’, ‘동화속 과자나라’, ‘캐릭터 월드 & 초대 작가전’ 등의 코너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회는 모든 조형물들은 빵, 과자, 설탕, 초콜릿 등으로 만들어진다.

이번 전시회는 빵, 과자를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이벤트로 총 4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는데 주최측은 서울 경인 지역 고아원생 및 결식아동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수익금 중 일부를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 <손인수>

한국학원, 군포현대학원 인수 중복 피해 다양한 특별반 개설 방침

한국제과기술학원(원장 채동진)이 지난해 12월 1일부로 군포 현대제과학원을 정식 인수함으로써 안양시에 두 개의 학원을 운영하게 됐다.

이 학원은 내부 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양한 특별반을 개설해 각 학원을 특화시킬 방침이다.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과정은 개업반, 특수연구반 등

기타

으로, 중복을 피해 두 개의 학원에 따로 개설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손인수>

노들담복지관 직업훈련생 모집 30명 정원 제과제빵과...장애인 대상

노들담복지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언어, 청각 및 지체장애인으로 직업훈련이 가능한 만 16~29세인 사람이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다. 1년간 진행될 이번 훈련과정은 훈련생에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훈련수당, 장려금 및 자격증 취득시 자격취득수당이 지급된다.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21일까지

• 문의 : (032)542-3711~5

해외 전시 안내

■ ISM 2000

- 개최장소 - 독일 쾰른
- 개최시기 - 2000년 1월 30일~2월 3일
- 전시품목 - 베이커리 제품, 초콜릿, 스낵, 아이스크림

■ RBA쇼

- 개최장소 -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
- 개최시기 - 2000년 3월 25일~27일
- 전시품목 - 제과제빵 관련 원부재료 및 기계, 소도구, 제품 실연 및 경영에 관한 각종 세미나

■ iba 2000

- 개최장소 - 독일 뮌헨
- 개최시기 - 2000년 9월 29일~10월 5일
- 전시품목 - 제과제빵 제품, 원부재료, 기계, 설비

명성제과제빵학원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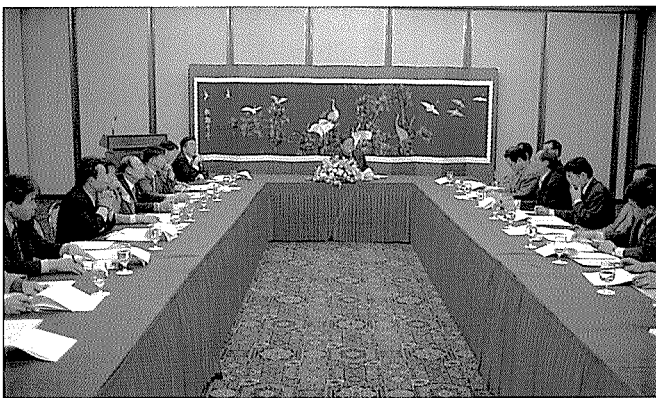
- 이전주소 : 전북 군산시 문화동 877-1
- 전화번호 : (0654)467-3890

마산제과제빵기술학원 이전

- 이전주소 :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722-10
- 전화번호 : (0551)292-5280

협회소식

‘뚜레쥬르’ 진출 저지 위한 비상특위 구성 12월 24일 특위 명의로 가맹사업 중단 요청 항의문 전달



제일제당이 전개하는 베이커리 가맹 사업 저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2일 캐피탈호텔에서 열렸다.

긴급 이사회는 이날 원부재료 업체인 제일제당이 99년 12월 현재 2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초기 업체와 약속한 냉동 생지 공급만을 위한 시범 점포 운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원부재료 공급으로 오늘날 식품 대기업으로

성장한 제일제당이 소비자인 베이커리 업계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긴급 이사회는 지난해 10월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뚜레쥬르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비상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긴급 이사회는 자영제과점 업체를 대표해 본회 고진곤 부회장(폼파도르과자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표해 본회 이사인 고려당 김지정 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아울러 경기도도지회 이덕주 지회장, 대전광역시지회 윤주경 지회장, 부산광역시지회 양도희 지회장, 광주광역시지회 김용관 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앞으로 뚜레쥬르 진출 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은 비상특위에서 논의하고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특위는 위원회 구성 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일차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제일제당 측에 가맹사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손경식회장 앞으로 발송했다.

협회소식

본회 김석중 사무총장 별세 12월 12일 급서, 무주 선영에 안장



대한제과협회 김석중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12일에 54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급서했다.

고인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고향인 전북 무주

군 안성면에 소재한 선영에 안장됐다.

고인은 제니코식품에 입사하며 베이커리 업계와 인연을 맺은 후 (주)뉴욕제과 영업 부장과 스위스식품 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87년 대한제과협회에 입사한 후 기획실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사무총장직에 오르는 등 12년간 협회에서 봉직했다.

노래 자랑을 통해 서로간의 단합을 다졌으며 지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남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회원간의 화합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주, 새 지부장에 이강국씨 임시총회 개최 임원진도 선출



충주시지부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이딸 리앙베이커리의 이강국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임원진을 개설했다.

▲부지부장: 박준서(비드프랑스) ▲고문: 박재문(브랑제리) ▲감사: 임용규(명보제과) ▲총무: 신혜철(피카디리제과) ▲재무: 안용욱(하나더과자점) ▲이사: 장 명(풍년제과), 손성운(루돌프제과점), 김영범(아몬드베이커리), 조영길(은혜제과점) ▲기술위원: 조궁연(황실제과), 김종환(코리아나)

동작·양천, 이웃돕기 앞장서 SBS 주최 결식 아동돕기 행사 참여

동작지회(지회장 변장섭)와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는 지난 달 11일 SBS 방송국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마련한 SBS의 ‘사랑의 이름으로’ 라는 프로그램이 실시한 결식 아동 돕기 행사에 참여해 이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제공했다.

동작지회 소속의 그린하우스과자점(대표 최명일) 직원 5명은 방송국에서 ‘사랑의 집’ 이라는 조형물을 제작했다. 양천지회 소속 20개 업소도 동작지회 4개 업소와 공동으로 행복한 세상백화점에서 실시한 행사장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시트를 이용해 케이크를 제조해 결식 아동에게 제공, 베이커리 업계의 훈훈한 인정을 대내외에 알렸다.

관악, 과업인 ‘송년의 밤’ 개최 노래 자랑으로 회원간 단합 다져

관악지회(지회장 김종남)는 지난달 14일 엔젤 웨딩홀에서 회원과 관련 단체 인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과업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관악지회 회원들은 식사와

성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지부 발전 기여 공로자에 표창장

성남시지부(지부장 조병희)는 지난해 11월 15일 궁전 뷔페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제과인의 한마당 잔치’ 행사를 가졌다.

회원 및 경기도지회 소속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성남지부는 회원간의 화합을 다졌으며, 지부 발전에 공헌이 많은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진주, 야유회로 회원 화합 다져 지리산에서 노래 자랑, 율놀이 실시



진주시지부(지부장 강정남)는 회원 및 연관 업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실시했다.

인근 지리산의 노고단, 화엄사, 쌍계사, 뱀사골을 경유한 산행에 이어 노래 자랑, 율놀이 대

회를 실시한 진주시지부는 야유회를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협회소식 종합/박종선〉